

#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여대학생의 인상형성

김 인 속 · 신 소 진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의상학과

## The Impression Formation of Man's Body Revealing Casual Clothe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

In-Sook Kim · So-Jin Shin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1994. 5. 2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structing factors of impression formation on man's body revealing casual clothes by university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vealing clothing styles and perceiver's gender on each factors of impression.

The stimuli consisted of 12 color photographs including various styles of body revealing casual tops and bottoms; subject consisted of 310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 subject observed 2 photographs each, randomly chosen from a pool of 12 and answered 37 semantic differential questions. Statistics applied for analysis were Factor Analysis, ANOVA and post hoc test.

Results were;

1. Important factors constructing the impression of a male dressed in body revealing casual clothes were modesty, sexual stimulation and individuality.
2. The styles of the body exposure and perceiver's gender had partial significant influence on impression formation.

### I. 서 론

Freud<sup>1)</sup>는 모든 욕구의 원천을 성욕으로 보았는데 성욕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는 '보고자하는 욕구'로서 상대의 성에서 있는 독특한 기관을 보려고 하는 욕망은 남녀 모두에게 능동적, 수동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적, 문화적 변동의 이루어지면서,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 성의

개방화는 광고나 매스콤, 영화등의 직접적인 성적 표현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의복에도 역시 반영되어 과거 신체 몇부분에 국한되었던 남녀의복의 노출은 극도로 과감한 노출, 두시, 밀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표출되고 있다. 남성 또한 신체적 매력에 관심을 갖게 되고 패션 시스템에 진입하여 남성 패션시장의 놀라운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의복행동실험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복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남성복의

인상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노출형태를 달리한 남성의 캐주얼복장을 지각대상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지각자변인으로 하여, 20대남성의 신체를 노출한 차림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차원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 신체노출부위에 따라 형성되는 성별에 따른 인상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를 노출한 의복에 의해 전달되는 인상

의복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 중, 노출과 연관된 의복 형태의 조작에 의한 자극물이 사용된 연구는 주로 여성복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왔으며, 노출과 관련한 부분적인 인상에 대한 연구와, 성적매력성의 유발과 관련된 성범죄의 원인귀속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왔다.

Gibbins와 Coney(1981)<sup>3)</sup>는 의복요소중 스커트 길이와 T-셔츠의 형태를 요인설계로 제작하여 성격특성 형용사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스커트 길이 중 허벅지 길이는 짧고 외향적인 것으로, 가장 긴 것은 세련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T-셔츠의 형태에서는 목이 깊게 파인 형이 좀더 짧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성적 매력에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Conner(1975)<sup>4)</sup>의 연구에서는 유행하는 스타일로서의 미니스커트는 정숙성 인상보다도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Abbey(1987)<sup>5)</sup>는 특정상황에의 남녀의 노출과 관능성 및 몇가지 인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노출이 적은 옷을 입은 여성은 상대의 성을 불문하고 성격적으로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보다 관능적이며, 유혹적이고, 경박하며, 자유분방한 상태도에, 사려가 없고, 불성실한 성격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도 덜 노출된 옷을 입었을 때에 더욱 쾌활, 다정, 유쾌, 휴머러스하고, 따뜻하며, 친절하게 지각되었으나 관능성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옷이 남자의 관능성인상을 유도하는 옷인지 등의 성고정관적 지각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연구과제로 남아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의 관능적 의복행위와 성윤리의식 및 성관련 행위의 개방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의 관능적 의복행위는 자유로운 성태도와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나, 여성의 관능적 의복행위는 낮은 상관이 있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성적 매력있는 또는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의복에 대한 인상형성 연구는 외국에서 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의 기본가정은 의복과 몸치장은 개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성적매력을 강조한 의복의 착용이 성범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원인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ahoon과 Edmonds(1987)<sup>7)</sup>의 연구에서 성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은 보수적인 의복에 비해서 성적 매력이 있으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성적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에 대해 여성지각자가 좀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Lewis와 Jonson(1989~90)<sup>8)</sup>은 성범죄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원인귀속시 지각자의 원인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화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복은 성적흥미의 유발정도에 따라 3수준(비치는 망사옷, 미니스커트, 진바지와 풍성한 상의)으로, 화장은 하지않은 상태와 짙은 화장으로 조작하여 동일한 모델을 사용한 6장의 흑백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성적 흥미를 크게 유발하는 의복인 비치는 망사옷이 미니 스커트 또는 진바지 차림보다 지각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원인귀속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성적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착용시 지각자는 상황귀속보다, 내적귀속을 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고에란(1990)<sup>9)</sup>이 여성수트의 복장에서 신체노출및 색이 정숙성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다리노출이 정숙성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미니스커트와 길게 노출한 목선이 일부관찰자로부터 성범죄유발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고, 신체노출이 많은 수트차림의 성격특성은 시선끌고자 함과 자기과시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Gibbins와 Coney<sup>10)</sup>, Paek<sup>11)</sup>, Conner<sup>12)</sup>등의 목 또는 다리노출이 정숙성 인상에는 관계없이 젊음, 신뢰성, 사회성, 등의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과와 피해자의 의복에 의한 성범죄 귀속 영향이 미니스커트차림과 스웨터, 바지차림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Leswis와 Jonson의 결과<sup>13)</sup>와 차이를 보여서 등서양의 의복의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점을 드러

내었다.

## 2. 지각자 변수로서의 성별이 의복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외모와 관련된 의미는 사람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첫인상은 지각자의 특성과 그들이 지각하는 외모와의 문맥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각자의 특성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이다. 성에는 오직 두개의 범주만이 존재하므로 남성과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의미는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나타나는 수가 있으며 동성과 이성의 의복인지는 불일치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sup>14)</sup>. 이와같은 불일치의 요소 중 연구를 통하여 규명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녀는 의복지각의 차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er<sup>15)</sup>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사진을 150개의 형용사로 평가하게 한 결과에서 여학생은 '독립적, 혁신적', '순진한, 순박한'이란 어휘를 인상평가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고, 남학생은 관능성에 관련된 형용사쌍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지각자는 이성의 의복 혹은 외모에 대해 보다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규명되었다. 30쌍의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남녀의 의복평가를 하도록 한 연구<sup>16)</sup>결과에서 상대성의 의복에 보다 후한 평가(아름답다, 단정하다, 매력적이다)를 하였으며,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의 사진을 보고 성적 매력을 평가하도록 한 실험연구<sup>17)</sup>에서 역시 이성을 평가할때 훨씬 후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채용을 가정한 실험<sup>18)</sup>에서도 낮은 외모수준의 여성을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지각자가 여성지각자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여성은 상위외모수준의 여성에게 높은 직무수행능력점수를 주었으나, 남성의 평가는 외모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의 현저한 의복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여, 젖을 바른 머리, 귀걸이를 착용한 남성에게 대해 여성스럽다고 보는 성향이 낮으며, 유행에 민감한 남자를 창의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sup>19)</sup>. 이것은 이성에 대한 본능적 관심이 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거나, 동성에 대한 분석이 보다 객관적이며, 정보가 풍부하며, 전문적인데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남성은 여성복장에 있어서 성적 매력성에 밝

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복에 대해 여성보다 더욱 여성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Wiliamson과 Hewitt(1986)<sup>20)</sup>는 남녀지각자를 대상으로 여성 의복의 관능성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연구하였는데, 남성은 덜 정숙한 차림일수록 그 매력성 평가가 여성보다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브라라든지 시스루룩등 노출적으로 선정적인 차림에 있어서는 남성의 매력성 평가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 반면, 여성지각자의 매력성평가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잡지광고와 성적매력성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결과<sup>21)</sup>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인 광고를 더 선호하였다. 성적인 광고에 대한 관능성인상평가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성적인 광고에 대한 관능성인상 기대수준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병희<sup>22)</sup>는 한국과 미국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격할 정체감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문화에 관계없이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이 밝고 여성적인 의복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여성의복에 있어서 성적인 이미지를 기대하였다. 송나인(1989)<sup>23)</sup>은 의복의 성적 이미지와 상황적 이미지의 인지에 대한 연구에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같은 의복을 보고 남성은 여성보다 더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내었으며, 이경희(1991)<sup>24)</sup>의 연구에서도 같은 의복착용자에 대한 평가에서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여성복을 보다 더 여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남성보다는 여성이 내적인 특성과 인상을 더욱 강하게 연관시키며 보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클래식한 차림에 대하여 남녀지각자는 모두 착용자의 성격특성을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그러한 평가경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였으며, 여성적, 로맨틱한 스타일을 남성지각자보다 더 수동적, 의존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였다<sup>25)</sup>. Zebrowitz<sup>26)</sup>는 남성은 능력차원이나 활동성을 중심으로 타인을 기술하는 반면, 여성은 자아개념, 사회적 상호작용, 자신의 감정 등에 기초하여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1) 신체노출 캐주얼의 남성착용자에 대한 인상차원을 규명한다.
- 2) 신체노출 캐주얼의 남성착용자에 대한 인상차원에서 각 노출형태별 인상차이를 규명한다.
- 3) 신체노출 캐주얼의 남성착용자에 대한 인상차원에서 남·녀지각자의 인상차이를 규명한다.

#### 2. 측정도구 및 실험설계

##### 1) 측정도구

##### (1) 자극물의 개발

**노출의복의 제작** : Man's Nonno ('90,'91,'92,'93 summer), 캐주얼 브랜드(VENTURA, INTERMEZZO, CARTE BLANCHE, SIMPLE LIFE)의 카탈로그를 통한 디자인조사와 판단자집단(대학원생 10명과 남녀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조사, 캠퍼스내 학생들의 직접관찰, 남성캐주얼 디자이너와의 유행경향 인터뷰를 통하여 의복의 아이템, 노출형태와 색상을 결정.

**상의** : 자연색 반팔의 T-셔츠를 기본형으로 하여 노출형태에 따라 수정보완하며, 몸에 밀착되는 형은 스판덱스소재의 기본형과 유사한 색상과 형태의 T-셔츠를 구입.

**하의** : 기본형의 청바지와 검정색의 스판덱스 바지를 구입하여 노출형태에 따라 수정보완.

**모델선정** : 얼굴 체격등의 인상효과가 적은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보시부 통계자료(1986년)의 만 19세~24세 청년의 표준체격(신장 : 168.6 cm, 몸무게 : 60 kg)에 합당하며 조사자와 판단자그룹(의상학과 대학원 학생 2명과 타과대학원생 2명)이 판정하기에 평범한 인상의 소유자 7명을 임의추출, 이들이 동일한 노출의복(소매없는셔츠와 청바지)을 착용한 반신상과 전신상 사진을 촬영하여 판단자집단(의상학과 학부생 20명과 대학원생 10명)이 평범한 인상의 소유자를 고르도록 한 결과, 70%의 선택으로 모델1명이 선정.

**상황설정** :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캐주얼화에 장신구를 배제하고,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설문제시내용** : “다음은 20대 남성이 낮 시간의 외출 중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설문지의 응답에 응해주십시오.”



AB 기본형



A-2 가슴노출



A-3 허리노출



A-4 팔노출



A-5 밀착



B-2 구멍난 긴 바지



B-3 밀착된 긴 바지



B-4 스판덱스 긴 바지



B-5 기본형 짧은 바지



B-6 구멍난 짧은 바지



B-7 밀착된 짧은 바지



B-8 스판덱스 짧은 바지

자극물의 매수와 크기 : 3×5 size의 칼라사진 12매.

(2) 인상평가척도개발

인상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sup>27)</sup>에서 사용된 모든 평가용어와 Damsorst의 논문<sup>28)</sup>에서 사용된 평가용

어 중 조사자가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6개의 평가용어를 합하여 총 103개의 평가용어가 추출되었으며, 전문가판단(국문학과 박사과정 2명)에 의하여 반대어가 적당하지 않은 평가용어 9개가 제외되었으며,

판단자 집단(의상학과 대학원생 20명, 학부생 10명)에 의하여 본 연구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평가용어 11개가 제외되어, 총 83개의 평가용어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축소된 평가용어와 자극물을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남: 56명, 여: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노출하지 않은 차림과 노출한 차림의 인상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평가용어 46개를 제외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37개의 평가용어가 추출되었다. 평가용어는 7단계의 의미 미분형척도로서 최저-3, 최고+3점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이러한 평가용어중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은 복합적인 의미이며, 지각자의 전체적인 기호를 알수있는 요인이므로, 독립적인 요인으로 분리시켜서 다른 추출된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른 하위요인과 함께 변량분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외모매력·선호평가용어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0.6이상)와 신뢰도 검증(Cronbach  $\alpha$  0.8이상)을 통하여 추출해 낸 결과, 5개의 평가용어-‘내가 좋아하는-내가 싫어하는’, ‘매력있는-매력없는’, ‘마음에 드는-마음에 들지 않는’, ‘멋있는-멋없는’, ‘보기 좋은-보기 싫은’-가 추출되었다.

##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상·하의를 분리 측정할 실험연구로서 상의는 5수준을 갖는 단일변인 설계이며, 하의는 2(길

이)×4(스타일)의 집단간 실험연구이다. 즉, 독립변인은 노출형태변인으로서, 노출형태 조작 내용은 상의는 노출부위(노출없음, 가슴노출, 허리노출, 팔노출, 밑착)이며, 하의는 노출길이(긴길이, 짧은길이)와 노출스타일(노출없음, 부분노출, 밀착1, 밀착2)이다. 관련 변인은 피험자의 성별이며, 자극물당 피험자의 인원은 남녀 각각 25명에서 26명이 배치되며, 피험자 한 사람당 2장의 자극물을 무작위로 뽑아 응답하도록 한다.

## 3. 표집대상

본조사는 1993년 6월 7일~6월 12일까지 6일간 시행되었다. 표본추출은 판단 자료집방법에 의해서 서울에 위치하는 K대학교 남녀 대학생으로 하였다.

남녀 대학생 325명이 응답한 설문지중 15부가 통계자료로 충분하지 않아 제외되어, 310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으로서는 요인분석, 변량분석, Pearson 적률상관관계 검정이 사용되었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인상형성의 구조

<표 1> 자극물의 노출형태

사진번호	노출부위	의복형태
AB	노출 부위 없음	혈렁한 반팔의 셔츠에 혈렁한 청바지
A-2	가슴 노출	앞트임을 길게 파서 단추를 채우지 않은 셔츠
A-3	허리 노출	배꼽이 보이는 길이의 짧은 셔츠
A-4	팔허리 노출	소매없는 셔츠
A-5	상체곡선 노출	몸에 밀착된 스판덱스 셔츠
B-2	하체 부분적 노출	구멍을 낸 청바지
B-3	하체곡선 노출 1	밀착된 청바지
B-4	하체곡선 노출 2	밀착된 스판덱스 바지
B-5	무릎, 종아리 노출	혈렁한 청반바지
B-6	무릎, 종아리 노출, 하체부분적 노출	구멍을 낸 청반바지
B-7	무릎, 종아리 노출, 하체곡선 노출 1	밀착된 청반바지
B-8	무릎, 종아리 노출, 하체곡선 노출 2	밀착된 스판덱스 반바지

<표 2> 전체지각자의 상하의 노출차림에 대한 인상구조

요인 1: 예의 정숙성 요인			
상 의		하 의	
평가용어	부하량	평가용어	부하량
품위 있는—품위 없는	.77	예의 바른—예의 없는	.85
예의 바른—예의 없는	.76	점잖은—점잖지 않은	.82
점잖은—점잖지 않은	.76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81
단정한—단정치 못한	.72	차분한—차분하지 않은	.80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72	단정한—단정치 못한	.79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72	품위 있는—품위 없는	.77
성실한—성실하지 않은	.71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76
차분한—차분하지 않은	.71	격식차린—격식차리지 않은	.75
격식차린—격식차리지 않은	.65	성실한—성실하지 않은	.72
길손한—결손하지 않은	.63	믿음직한—믿음직하지 못한	.69
책임감 있는—책임감 없는	.60	책임감 있는—책임감 없는	.63
믿음직한—믿음직하지 못한	.54	결손한—결손하지 않은	.61
이기적인—이기적이지 않은	-.40	외향적인—외향적이지 않은	-.35
남들과 다른—남들과 비슷한	-.44	이기적인—이기적이지 않은	-.39
경박한—경박하지 않은	-.60	경박한—경박하지 않은	-.50
총변량에 대한 비율	: 51.3%	총변량에 대한 비율	: 64.5%
고유근	: 7.03	고유근	: 8.02

제 2 요인 : 성적 자극성 요인

제 2 요인 : 성적 자극성 요인			
상 의		하 의	
평가용어	부하량	평가용어	부하량
개방적인 성의의식을 표현하는	.70	유혹하는—유혹하지 않는	.71
—개방적인 성의의식을 표현하지 않는		자극적인—자극적이지 않은	.68
자극적인—자극적이지 않은	.68	충동적인—충동적이지 않은	.68
유혹하는—유혹하지 않는	.64	개방적인 성의의식을 표현하는	.67
야성적인—야성적이지 않은	.64	—개방적인 성의의식을 표현하지 않는	
충동적인—충동적이지 않은	.60	선정적인—선정적이지 않은	.53
개방적인—개방적이지 않은	.59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45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47	개방적인—개방적이지 않은	.44
선정적인—선정적이지 않은	.35		
외향적인—외향적이지 않은	.34		
총변량에 대한 비율	: 28.4%	총변량에 대한 비율	: 24.2%
고유근	: 3.52	고유근	: 3.72

제 3 요인 : 개성 요인

제 3 요인 : 개성 요인			
상 의		하 의	
평가용어	부하량	평가용어	부하량
상상력이 풍부—상상력이 부족한	.69	개성있는—개성없는	.71
창조적인—창조적이지 못한	.68	창조적인—창조적이지 못한	.69
개성있는—개성없는	.66	상상력이 풍부—상상력이 부족한	
적극적인—적극적이지 않은	.38	야성적인—야성적이지 않은	.54
		적극적인—적극적이지 않은	.43
		남들과 다른—남들과 비슷한	.40
총변량에 대한 비율	: 6.9%	총변량에 대한 비율	: 6.1%
고유근	: 2.35	고유근	: 2.86

### 1) 인상형성의 하위요인추출

신체노출 차림에 대한 인상형성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한 요인분석은 스크리테스트(Scree-Test) 결과와 아이젠 값(Eigenvalue) 1.0이상, 전체변량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요인의 수로 varimax회전후 요인적재량이 낮거나(0.3이하), 요인적재량이 낮으면서(0.4이하) 다른 요인과 요인적재량이 비슷한 크기인 형용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28개의 평가 용어가 요인분석에 포함되었다.

상의와 하의에 대한 인상평가는 요인의 수가 세개씩이며, 요인의 구성평가용어가 비슷하여 요인의 성격이 이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같은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상의화 하의의 제 1요인은 상의전체변량에서는 51.3%를 설명하며, 하의 전체변량의 64.5%를 설명하여,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예의·정속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상의전체변량의 28.4%를 설명하고, 하의전체변량의 24.2%를 설명하며, 성적자극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상의전체변량의 6.9%를 설명하고, 하의전체변량의 6.1%를 설명하며, 개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요인구조의 성격을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예의·정속성요인은 그 구성평가용어를 비교해볼때, 선행연구의 품위요인<sup>29)</sup>, 평가요인<sup>30)</sup>, 정속성요인<sup>31)</sup>, 안정감요인<sup>32)</sup>과 유사하다. 주로 '품위있는' '점잖은' '단정한' '성실한' '예의바른' 등의 평가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이다.

성적자극성요인은 노출로 인해 도출된 특징적 요인으로 보여진다. Zellman과 Goodchilds의 연구<sup>33)</sup>에서 여성의 관능적 의복행위는 자유로운 성태도와 관련이 있으나, 남성의 관능적 의복행위는 자유로운 성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적자극성요인이 높은 설명력을 가진 요인으로 도출되어 차이를 보인다. 또한 Abbey는 그의 연구<sup>34)</sup>에서 어떠한 옷이 남성의 관능성을 표현하는 옷인지 모호하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성적자극성요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요인은 선행연구의 개성·활동성요인<sup>35)</sup>과 독특성요인<sup>36)</sup>, 실용성요인<sup>37)</sup>, 동조성요인<sup>38)</sup>과 유사하다. 주로 '개성있는', '눈에 띄는', '남들과 다름', '독특한'

등의 평가용어로 구성되어있다.

### 2)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과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은 지각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요인으로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서, 그 집단의 요인구조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3>은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과 각 집단의 상·하의별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이다.

<표 3>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과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의부	예의 정속성 요인	성적 자극성 요인	개성 요인
상의	.67***	.13	.40***
하의	.65***	-.12*	.30***

\*p < .05      \*\*p < .01      \*\*\*p < .001

상관관계를 비교 해보면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과 가장 관련이 많은 요인은 상의와 하의 모두에서 예의·정속성 요인이며, 예의·정속성이 높을 수록 외모매력·선호도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개성요인과의 관련성이 높은 편으로 개성이 높을수록 외모매력·선호도도 높아지나, 성적 자극성요인은 상·하의에서 상관관계가 차이가 있는데, 하의에서 성적자극성과 외모매력·선호평가의 관계는 약간의 부적상관관계를 보여서, 성적자극성이 높을수록 외모매력·선호는 낮아진다. 그러므로 남성복의 성적자극성 요인은 의복의 아이템에 따라서 외모매력성이나 그 선호가 달라지며, 특히 하의는 성적 자극성이 높을수록 매력인상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2. 노출부위와 지각자성별에 의한 영향

상의와 하의의 인상형성의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신체노출별인(상의:노출부위, 하의:노출길이, 노출스타일)과 자각자변인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상의

##### (1) 신체노출에 의한 영향

신체노출에 의한 인상요인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인상의 차이가 상당히 유의하게 나왔다. 신체노출별 인상요인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출하지 않은 차



<표 4> 상의 노출차림 지각시 노출부위와 성별에 따른 인상의 변량분석 결과(F)

인상요인 변량원	외모매력· 선호평가 요인	예의· 정숙성 요인	성적 자극성 요인	개성 요인
노출부위	4.71**	42.84***	28.97***	21.49***
성 별	.08	5.24*	2.88	.41
노출부위 ×성별	1.40	.73	1.44	2.04

\*p<.05    \*\*p<.01    \*\*\*p<.001

최상위점수를 기록하여 특출성을 보인다.

2) 성별에 의한 차이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성별의 주효과와 유의한 차이는 예의·정숙성요인에서만 나타났으며, 노출부위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요인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예의정숙성요인에 나타난 성별에 의한 차이는 그 유의도가 크지는 않았으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좀더 예의정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성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5> 상의 노출부위별 인상요인의 평균점수

	외모매력·선호 ·평가 요인	예의·정숙 성 요인	성적자극성 요인	개성 요인
노출부위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없음	-0.41	1.98	-1.08	-0.87
가슴	-1.51	-0.30	1.10	0.25
허리	-1.38	-0.02	0.76	0.36
팔	-1.02	0.30	0.79	0.25
밀착	-1.42	0.13	1.07	0.24

림이 가장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과 예의·정숙성인상점수가 높았고, 성적자극성요인과 개성요인의 인상점수는 낮았으며, 노출한 차림은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과 예의정숙성요인의 인상점수가 낮고, 성적자극성요인과 개성요인의 인상점수는 높다. 노출한 차림중에서도, 가슴노출은 예의·정숙성요인과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에서는 최하위점수를 성적자극성요인에서는

<표 6> 상의 노출차림 지각시 지각자 성별에 따른 예의·정숙성요인의 평균점수

지각자성별	예의 정숙성 요인의 평균점수
남성지각자	0.13
여성지각자	0.45

\*p.05

3) 하의

(1) 신체노출에 의한 영향

하의의 신체노출변인은 길이와 노출스타일로 길이는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 높은 영향을 주었는데, 길이의 노출변인이 단독으로는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특이할만하다. 스타일은 모든 요인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주었는데, F값의 비교에 의하면, 스타일에 의한 영향이 길이에 의한 영향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7>.

<표 7> 하의 노출차림지각시 신체노출변인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인상의 변량 분석결과(F)

변량원	인상요인	외모매력·선호평가 요인	예의·정숙성요인	성적자극성요인	개성요인
길 이		2.08	27.94***	20.19***	14.79***
스 타 일		6.40***	34.26***	40.91***	14.91***
성 별		0.00	5.07*	1.69	1.10
길이*스타일		5.28***	13.22***	11.14***	5.57***
성별*길이		2.130	2.82	1.46	0.70
성별*스타일		3.39*	5.79****	3.54*	4.61**
성별*길이*스타일		0.46	1.21	1.51	4.51**

\*p<.05    \*\*p<.01    \*\*\*p<.001

<표 8> 하의 길이에 따른 인상요인별 평균점수

	예의 정숙성 요인	성적 자극성 요인	개성 요인
길이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긴 바지	-0.03	0.05	-0.05
짧은 바지	-0.45	0.53	0.33

먼저 길이에 의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표 8>의 결과에 의하면, 긴 길이는 짧은 길이에 비하여 예의정숙성이 높으며, 짧은 길이는 긴길이에 비하여 성적자극성과 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일에 의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모든 요인에서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표 9>의 결과에 의하면,

기본형의 청바지는 예의·정숙성이 가장 높지만, 성적 자극성과 개성은 가장 낮은 스타일로, 구멍난 청바지는 개성이 가장 높지만, 예의·정숙성이 가장 낮은 스타일로, 밀착된 청바지는 외모매력·선호가 가장 높은 스타일로, 스펀덱스바지는 성적자극성이 가장 높지만, 외모매력·선호가 가장 낮은 스타일로 나타나서, 각각의 노출 스타일마다 그 인상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길이와 스타일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길이와 스타일에 따른 평균점수를 나타낸 <표 10>의 결과에 의하면, 긴 길이의 바지는 스타일에 따른 인상점수의 차이가 크지만, 짧은 길이의 바지는 스타일에 의한 인상점수의 차이가 긴 길이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기본형과 밀착된 청바지 스타일은 길이에 의한 인상의 차이가 큰 편이지만, 구멍난 청바지와 스펀덱스 바지는 길이에 의한 인상의

<표 9> 하의 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별 평균점수

	외모매력·선호평가 요인	예의·정숙성 요인	성적 자극성 요인	개성 요인
스타일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기본형청바지	-0.46	0.19	-0.42	-0.23
구멍난청바지	-0.79	-0.63	0.58	0.46
밀착된청바지	-0.42	0.07	-0.09	-0.09
스판덱스바지	-1.02	-0.52	0.96	0.35

<표 10> 하의 길이와 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별 평균점수

스타일	길이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	예의·정숙성요인	성적 자극성 요인	개성요인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기본형청바지	긴바지	-0.41	0.78	-1.23	-0.95
	반바지	-0.48	-0.15	0.05	0.19
구멍난청바지	긴바지	-0.68	-0.52	0.48	0.34
	반바지	-0.97	-0.81	0.75	0.66
밀착된청바지	긴바지	0.18	0.80	-0.92	-0.56
	반바지	-0.87	-0.49	0.55	0.27
스판덱스바지	긴바지	-1.17	-0.56	0.99	0.38
	반바지	-0.80	-0.46	0.91	0.31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으며, 특히 스판덱스 바지는 다른 바지 스타일과 비교하여 긴 바지와 짧은 바지의 요인별 점수의 크기가 반대로 나타났는데, 스판덱스 긴 바지는 외모매력선호평가에서는 최하위점수로 성적 자극성 요인에서는 최상위점수로 분리되어, 지나치게 신체에 밀착된 스타일은 직접적인 노출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성별에 의한 차이**

성별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주 효과는 예의 정숙성요인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성별과 스타일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길이와 스타일의 상호작용관계에 의한 차이는 개성요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의정숙성요인에서 나타난 성별에 의한 차이는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노출한 스타일에 대하여 좀더 예의정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의에서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이성에 대한 긍정적 지각 이론과 일치한다.

<표 11> 하의의 노출차림 지각시 지각자성별에 따른 예의정숙성요인의 평균점수

성별	예의 정숙성 요인의 평균점수
남성지각자	-0.33
여성지각자	-0.15

성별과 스타일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를 남녀별 요인점수를 <표 12>로 비교해보면, 외모매력선호요인에서는 기본형의 스타일에 대하여 남성지각자는 여성보다 기본형 청바지를 외모매력적으로 보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구멍난 청바지와 밀착된 청바지의 노출스타일에 대하여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외모매력적으로 보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스판덱스 밀착의 바지 스타일에 대하여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주어서 남성의 노출스타일 중에서도 스판덱스 밀착과 같은 하의 밀착이 너무 심한 스타일은 여성이 남성보다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의정숙성요인에서는 스판덱스 바지 스타일을 제외한 바지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주에 밀착이 너무 심하지 않은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예의정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적자극성요인에서는 스판덱스 바지를 제외한 바지 스타일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주어 남성이 대체로 여성보다 성적자극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의의 밀착이 아주 심한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성이 성적자극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sup>39)</sup>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관능성 기대수준이 높는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성인 남성복의 노출에 대하여는 성적자극성평가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동성 의복의 노출에 대하여는 관능성의 기대수준이 이성보다 낮음을 알 수 있

<표 12> 하의 노출스타일에 따른 남녀지각자의 인상이인별 평균점수

스타일	성별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	예의·정숙성요인	성적 자극성 요인	개성요인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기본형청바지	남성	-0.18	0.15	-0.16	-0.08
	여성	-0.70	0.22	-0.64	-0.36
구멍난청바지	남성	-0.94	-0.78	0.64	0.42
	여성	-0.60	-0.45	0.52	0.51
밀착된청바지	남성	-0.62	-0.18	0.04	-0.10
	여성	-0.24	0.28	-0.78	-0.01
스판덱스바지	남성	-1.84	-0.36	0.78	-0.01
	여성	-1.16	-0.65	1.10	0.64

〈표 13〉 하의 노출길이와 스타일에 따른 남녀지각자의 개성요인의 평균점수

바지스타일 바지길이 지각자성별	기본형 청바지		구멍난 청바지		밀착된 청바지		스판덱스 바지	
	긴바지	반바지	긴바지	반바지	긴바지	반바지	긴바지	반바지
남성지각자	-0.60	0.23	0.33	0.62	-0.21	-0.03	-0.23	0.24
여성지각자	-1.27	0.16	0.33	0.70	-0.80	0.57	0.78	0.38

다. 개성요인에서는 기본형을 제외한 다른 바지 스타일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높은 점수를 주어서 여성이 남성복장의 노출을 보다 개성있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현저한 의복행위에 대해 창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sup>40)</sup>의 결과를 지지한다. 위의 스타일과 성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서 스판덱스 스타일은 다른 노출스타일과 비교하여 지각자에게 예외성을 많이 나타내는 스타일로 지적되는데, 하의에서 몸에 너무 밀착되는 스타일은 남성지각자와 비교하여 여성지각자에게 성적 자극성인상은 매우 증대시키며, 외모매력선호평가와 예의·정숙성인상은 매우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과 길이와 노출스타일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개성요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표 13〉에 나타난 평균점수의 결과에 의하면, 기본형 바지는 긴 길이와 짧은 길이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개성있게 지각하였으며, 밀착된 청바지는 긴 길이일 때는 남성이 더욱 개성있게, 짧은 길이일 때는 여성이 더욱 개성있게 지각하며, 구멍난 청바지는 긴 길이일 때는 남성과 여성의 점수가 같으나, 짧은 길이일 때는 여성이 더욱 개성있게 지각하며, 스판덱스바지스타일은 긴 길이와 짧은 길이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개성있게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의 노출이 길이와 밀착등 측면에서 강도가 클 때 남성보다 더욱 개성있게 지각하며, 그 강도가 약하면 남성보다 더욱 개성없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남성의 노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노출한 캐주얼의 남성착장자에 대한 인상형성의 구조를 규명하고, 신체노출한 캐주얼의 남성착장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신체노출에 따른 인상평가점수의 차이와 남녀지각자의 평가점수차이

를 인상형성 하위요인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출부위를 달리한 남성캐주얼차림에 대한 인상형성의 구조는 상·하의 노출차림에 대한 요인구조가 비슷하며, 제 1요인은 예의·정숙성요인이며, 제 2요인은 성적자극성요인이고, 제 3요인은 개성요인이다. 외모매력 선호평가요인과 인상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예의정숙성요인과 개성요인은 상하의 요인구조에서 모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적자극성요인은 하의에서만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신체노출에 따른 인상평가점수의 차이를 변량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상의는 신체노출에 의한 차이가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였으며, 노출한 차림은 모두 외모매력·선호평가와 예의·정숙성점수가 낮고, 성적자극성과 개성점수는 높다. 노출한 차림 중에서도, 가슴노출은 예의·정숙성과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에서는 최하위점수를, 성적자극성요인에서는 최상위점수를 기록하였다. 하의의 신체노출변인 중 길이는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스타일은 모든 요인에서, 길이와 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도 모든 요인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짧은 길이는 긴길이에 비하여 예의·정숙성이 낮으며, 성적자극성과 개성이 높게 지각된다. 각 스타일의 요인별 평균점수에 의하면 밀착된 청바지 스타일은 외모매력·선호평가요인에서, 기본형 청바지 스타일은 예의·정숙성요인에서, 스판덱스바지스타일은 성적자극성 요인에서 구멍난 청바지는 개성요인에서 각각 최상위의 점수를 기록하여 스타일마다 인상의 특성이 나타났다. 길이와 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모든 요인에서 나타났는데, 긴 길이는 스타일에 따른 인상점수의 차이가 크지만 짧은 길이는 스타일에 의한 인상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기본형과 밀착된 바지 스타일은 길이에 의한 인상의 차이가 크지만, 구멍

난 청바지와 스펀덱스바지 스타일은 길이에 의한 인상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스펀덱스 바지스타일은 다른 바지 스타일과는 달리 긴 바지가 짧은 바지보다 외모매력·선호평가점수가 낮고, 성적자극성 점수는 높아서 특출성을 보였다.

세째, 지각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상·하의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노출한 차림에 대하여 예의·정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하의에서는 성별과 노출의 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스펀덱스 바지를 제외한 노출 스타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매력·선호평가와 예의·정숙성은 높게, 성적자극성은 낮게 지각하였으며, 대부분의 노출스타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개성있게 지각하였으나, 기본형의 반바지와 밀착된 긴바지의 형태와 같이 노출의 강도가 약할 때에는 남성보다 개성없게 지각하였다.

앞으로 남성의복에 대한 인상평가척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패션의 과감한 노출과 다양한 디자인 경향에 비추어 노출과 관련된 연구가 보다 적극적인으로 행해져야하며 다양한 지각 대상변인과 상황의 변인조작을 통하여 상·하의의 노출의 상호작용효과도 고려한 보다 복합적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Sigmund Freud,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VIII*, 1905, p. 98. quoted in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3, p. 55.
- 2)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3, p. 64.
- 3) Gibbins, K. & Colney, J.R. (1981),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pp. 720-722.
- 4) Conner, B.H., Peter, K. &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Effect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 *H.E.R.J.*, 4(1), 1979, pp. 32-41.
- 5) Abbey, A., Gozzarelli, C., Mclaughlin, K. and Harnish, R., The effects of clothing and dya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987, pp. 108-126.
- 6) Zellman, G. and Goodchilds, J., Becoming sexual in adolescence, In E.R. Allgeier and N.B. McCormick, ed., *Changing Boundaries: Gender Roles and Sexual Behavior*, 1983, pp. 49-63.
- 7) Cahoon, D.D. & Edmonds, M. (1987), Estimates of opposite sex first impressions related to female's clothing sty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5 p. 406.
- 8) Lewis, L.I. & Johnson, K.P., Effect of dress, cosmetics, and casu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T.R.J.*, 8(1), 1990, pp. 22-27.
- 9) 고애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0, pp. 81-93.
- 10) Gibbins & Coney, 전제서, 1981, pp. 720-722
- 11) Paek, 전제서, 1986. pp. 10-16
- 12) Coner, 전제서, 1979. pp. 32-41
- 13) Lewis, L. & Johnson, K.P., 전제서, 1990, pp. 22-27.
- 14)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15) Kaiser, S.B., Clothing and the social organization of gender perception: A developmental approach, *C.T.R.J.*, 7(2), 1989, pp. 46-56.
- 16) Lubner-Rupert, J.A. and Winakor, G., Male and female style preference and perceived fashion risk,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1985, pp. 265-266.
- 17) Barnes, M.L. and Rosenthal, R., Interpersonal effects of experimenter attractiveness, attire,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5.
- 18) Bardack, N.R. and McAndrew, F.T. (1985). "The Influe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manner of dress on success in a simulated decis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 pp. 777-778.
- 19) Hongo, M. and Kaiser, S., Male endorsers in advertisem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1986, pp. 981-982.
- 20) Rossi, S.R. and Rossi, J.S., Gender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women in magazine advertising, *Sex roles*, 12, 1985, pp. 1033-1039.
- 21) 이명희, 한국과 미국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1993, pp. 367-379.
- 22) 송나인, 현대 여성일상복의 성적 이미지와 상황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9, pp. 13-22.

- 23) 이경희,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1991, p. 81.
- 24) Sweat, S. and Zentner, M.A.,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rance style, In M.R. Soloma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1985, pp. 321-335.
- 25) Zebrowitz, L.A, Social Perception, (Pacific Grfove: Brooks/cole Publishing Co.). 1990.
- 26) 박혜선, 의복에 대한 의미분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고애란, 전계서, 1990.  
남미우, 상황, 의복단서및 지각자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이은미, 남성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 27) Damhorst, M.L., In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T.R.J.*, 8(2), 1990, pp. 1-12.
- 28) 이주현(1990, 전계서)의 연구에서 종합적인 요인구조에서의 제 2 요인, 고애란(1990,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1 요인, 강혜원과 이주현(1990,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3 요인, 이경희(1991,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3 요인, 정인희(1992,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1 요인, 박소향(1993,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2 요인으로 분석됨.
- 29) Delong과 Lartz(1980,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1 요인, 박혜선(1982,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1 요인, 남미우(1992,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1 요인, 이은미(1992,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3 요인으로 분석됨.
- 30) 차미성(1992,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1 요인으로 분석됨.
- 31) 홍병숙(1988, 전계서)의 연구에서 양장에서는 제 1 요인으로, 한복에서는 제 2 요인으로 분석됨.
- 32) Zellman, G. and Goodchilds, J., 전계서, 1983, pp. 49-63.
- 33) Abbey, A., Gozzarelli, C., Mclaughlin, K. and Harnish, R., 전계서, 1987, pp. 108-126.
- 34) 이은미(1992,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2 요인으로 분석됨.
- 35) 남미우(1992,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3 요인으로 분석됨.
- 36) 강혜원과 고애란(1990,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3 요인으로 분석됨.
- 37) 강혜원과 이주현(1990, 전계서)의 연구에서 제 4 요인으로 분석됨.
- 38) Rossi, S.R. and Rossi, J.S., 전계서, 1985, pp.1033-1039.
- 39) Hongo, M. and Kaiser, S., 전계서, 1989, pp. 223-230.